

# 최악의 죽음 안락사

컴퓨터 정보 보안 전공 202310786 김도현

## 1. 서론

‘안락사’는 그리스어로 좋은 죽음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의 안락사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가 합법화를 했으며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1994년 오레건을 시작으로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5개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은 삶이 무의미하거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그리고 불치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가족 고통과 부담등의 이유로 합법화 했다. 과연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옳은가?

## 2. 본론

### 2-1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안락사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을 앓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한 혐의로 의사 2명을 살인 용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는 2011년 정실질환을 앓고 있던 일본의 Y씨의 아버지를 약물 투여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Y씨의 어머니도 같은 날 체포됐습니다. Y씨의 아버지는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한 상태였는데 가족들의 요청으로 갑자기 퇴원한 날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 Y씨의 아버지는 안정된 상태였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사전 계획에 따라 집에서 특정 약물을 투입해 살해한 후 병사로 보이도록 꾸밈을 것으로 보고 있다. Y씨의 아버지의 사망신고서에는 사인이 병사 및 자연사로 적혀있으며, 시신은 경찰의 확인이나 해부도 거치지 않은 채 화장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관련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보아 살인을 안락사로 위장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 앞으로 더 많이 치밀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화 시대인 지금 미래에 노년층들이 젊은이들의 압박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회적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2-2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 해야합니다. 한때 에이즈나 백혈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거나,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이즈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만 한다면 목숨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백혈병 또한 과거에 비하면 치료가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암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와 다르게 약물치료부터 수술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현재 불치병인 병들이 미래에는 간단한 알약 하나 수준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시행을 한다면 미래에 치료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이미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수직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안락사를 시행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3. 반론

#### 3-1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 또한 없애줍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이 고치기 어렵다면 병원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며 치료를 위한 약 또한 오랫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도 고용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위해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혹여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혹여나 환자가 질병을 이겨내고 완치를 한다면 매우 좋겠으나 이런일은 매우 희박하며 환자 또한 완치 후 자신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를 위해 막대한 병원비를 투자했지만 끝내 환자가 사망한다면 남은 환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 및 공허함과 상실감은 그어떤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행하여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3-2

많은 국민들이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찬성이 76%나되는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찬성한 이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등과 같은 이유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4. 결론

국가에서는 안락사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며, 죽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안락사 찬반 투표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을 해야한다면 매우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며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직접 안락사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 하며,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지가 되살아나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안락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고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안락사가 시행이되든 아니든간에 국가에서 안락사에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의 사례들 하나하나 참고하고 신중히 결정했으면 합니다.

### 5. 참고 문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6524#home>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 뉴스

[http://www.snuh.org/board/B003/view.do?bbs\\_no=5880](http://www.snuh.org/board/B003/view.do?bbs_no=5880)

비온뒤 뉴스&컨텐츠

<https://aftertherain.kr/commentary/?work=view&idx=8050&cate=20a11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B%9D%BD%EC%82%AC>